

# 광주, '공교육 혁신'의 산실

### 교육부, 2019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 투어

### 광주 찾아 공교육 강화 사례 공유 "전국 확산"



광주교육청 공교육 혁신·강화 사례가 전국 주요 교육 관계자에게 공유됐다.

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담당자 40여명은 광주교육청과 관내 용봉중학교를 방문해 혁신교육 운영 관련 사례를 듣고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 담당자가 교육청 평가 영역별 우수교육청(광주·부산·세종)을 방문해 정책 설명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 시·

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투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으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광주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평가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혁신학교 3기의 질적 도약을 위해 '빛고을 혁신학교'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 노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한 광주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 점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오전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광주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확산에 대한 강연과 설명회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용봉중학교를 방문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와 학생 주도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아지트'(아이들의 지혜를 모아 트라이아자)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장학국 광주시교육감은 "혁신교육 3기 안착을 위해 학교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광주교육 내실화에 노력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꿈을 성장시키는 교육활동을 더욱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지역으로 뽑힌 부산-광주-세종교육청으로 이어지며 3일간 진행된 현장방문(투어)에서 부산 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및 성폭력·자살 예방과 2차 조치, 기숙형 대안학교의 돌봄·보살핌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광주교육청은 혁신학교 질적 성장과 확산, 학생 주도 학교 공간혁신(아지트),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교원 연수 등 공교육 강화 사례 등을 공유했다. 세종교육청은 13일 유아교육 기반 강화 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사례를 공유한다.

조인호 기자

## 무안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성찰평가



무안교육청은 11일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 100여명이 영재교육원 강당에 모여 2020. 무안혁신교육 수립을 위한 2019. 무안혁신교육지구 운영 성찰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무안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무안혁신교육지구의 성과에 대해 나누고, 차후 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혁신교육

과 김유동 장학관의 2020. 전남혁신교육지구 방향 이해 특강과 무안혁신교육지구 TF팀의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무안의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박미선 선생님(혁신교육과)을 비롯한 12명의 퍼실리테이터가 각 분임에 함께해서 내년 중점 추진 사안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평가에 참여한 한 교장선생님은 "이번 성찰평가를 통해 무안혁신교육지구가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학교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무안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무안교육공동체들의 공동사고를 통해 혁신철학에 부합하는 무안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장성공공도서관, 한글학당 운영 성과보고회 성료



장성공공도서관은 지난 10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수강생 및 내외빈 540여명을 모시고 2019년 한글학당 운영 성과보고 및 시화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1월, 15개 마을로 시작해 어느덧 장성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학당'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난 1년간 어르신들이 배우고 익힌 한글 실력을 시화로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1부 행사는 1년 동안의 한글학당 추진 경과보고와 학습자들의 소감 발표 및 시상식, 우수 시화작품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소감 발표를 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 그 가난했던 시절,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남모르게 서럽고 한 맺힌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라며 살아온 인생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듣는 이들에

게 감동을 주었다. 이는 한글학당 어르신들 각각의 시연과 마을을 대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신 도서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마지막 말로 모든 학습자들을 대신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2부 행사는 장성 지역 출신이자 서평전문가로 유명하며 지난 9월 5일 장성공공도서관 제1호 독서명예관장으로 위촉된 김을호 교수가 재능기부로 시화를 맡아 재치있게 진행하였다. 행사 내용은 지난 1년간 153회에 걸쳐 각 마을 한글학당을 방문해 색소폰, 종이접기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물한 우리 도서관 '행복나눔봉사단'의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색소폰, 하모니카 등 봉사단의 공연과 초청 가수 '홍시'의 특별 공연까지 더

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홍시'는 장성 출신이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가수로 장성공공도서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홍시' 가수의 할머니도 한글학당 수강생이기도 해 앞으로 한글학당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특히 행사장 한 편에는 장성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업 성과물인 퀘트, 흠패션 등 7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작품은 한글학당 어르신들과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도 일으켰다.

김점수 관장은 "뒤늦은 공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용기와 열정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장성공공도서관이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 장성군의 화에 건의하여 <성인문해교육 실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문해교육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튼튼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호소했다.

장성공공도서관은 학력인증과 정인 문해대학과 11개 읍면 28개 마을, 45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글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61-399-1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개최

교육부 정책관, 학부모, 교원 등 400명 참석



전남도교육청이 1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도내 중·고교 학부모와 교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진로에 따라 다

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콘서트는 '모두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에는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김영중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나서 고교학점제 및 최근 발표된 일방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중심 교실개혁 등 그간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허성은 기자

